

개발과 이슈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V

- I. 2019 UN HLPF 개요
- II. 주요 SDGs 이행과정 검토
- III. 자발적 국별 검토 (2019 VNR)
- IV. 2019 UN HLPF의 의의 및 향후 일정

UN ECOSOC 주관 하에 2019년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고위급정치포럼(HLPF)이 뉴욕의 UN본부에서 2019년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SDGs 이행 과정을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자리로, 2019년 포럼은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을 주제로 SDG 4, 8, 10, 13, 16, 17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처음으로 17개 모든 목표를 검토 완료하며 그간의 HLPF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동안 SDGs 이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빈곤과 아동 사망률 감소 및 HBV 감염 발생률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및 실업률 감소 등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시금 강조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빈곤 근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약 100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개발자금 조달 및 기타 이행 수단은 아직 미흡한 단계로 나타난다.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후변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 및 소득 불평등 해소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HLPF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 및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정보센터 윤유리

I. 2019 UN HLPF 개요

2030 Agenda 이행 4번째 해를 맞이하며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2019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정치포럼)는 2016, 2017 및 2018 HLPF에 이어 SDGs 이행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6년 시작된 HLPF의 SDGs 이행현황 점검은 2017년부터 3개년에 나누어 테마별로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월 ECOSOC 주관 하에 3번째 테마 점검 및 지난 4년 간의 HLPF의 역할 점검¹⁾과 함께 9월 UN총회 주관 하에 각국 정상급 회의로 4년 만에 개최되었다.

2019 UN HLPF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을 주제로 7월 9일 ~ 18일까지 UN ECOSOC 의장(2018.8~2019.7 Inga Rhonda King 주UN대표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대사) 주관으로 33개의 공식 회의, 200여개의 부대 행사 및 기타 스페셜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2,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 2019 HLPF 논의 주제 및 목표



1) A/RES/67/290과 A/RES/70/299에 의거

2017년 ‘빈곤 퇴치와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7개 목표(SDG 1, 2, 3, 5, 9, 14, 17)를, 그리고 2018년에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로의 변혁’이라는 주제 하에 6개 목표(SDG 6, 7, 11, 12, 15, 17)에 이어, 2019년에는 SDG 4(양질의 교육),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SDG 10(불평등 감소), SDG 13(기후변화 대응), SDG 16(정의 · 평화 효과적인 제도), 그리고 SDG 17(글로벌파트너십) 등 총 6개 목표를 검토하였다. 2019년은 SDGs 이행평가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7개의 목표를 모두 검토 완료하였으며, 4년 마다 UN에서 발간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개발 보고서(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²⁾도 발간되었다. SDGs 채택 이후, 많은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하다. 국가들은 SDGs를 국가 계획 및 전략으로의 내재화를 시작하였으며, 일관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0여 건의 자발적 국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중 35개 검토에서 SDGs와 국가 예산을 연계하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기후 변화 및 환경보호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도 언급된 바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표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2030년까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은 유엔대표부 등과 함께 ‘시민사회 역량강화 및 이행노력 확대(Empowering People and Strengthening)’를 외교부 등과는 ‘분쟁취약국의 SDG 16 이행 의지와 실제(SDG 16 in conflict affected situation: ambition vs reality)’라는 주제로 두 건의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이 과거 ODA를 통해 시민사회 성장의 도움을 받았고 이것이 경제 ·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만큼 개발도상국의 SDG 16 이행을 위해 각 분야 시민사회와 협력이 긴요한 만큼, 이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은 스스로 분쟁취약국이었고, g7+가 주도한 ‘뉴딜 정책’이 2011년 11월 부산에서 채택돼 개발협력의 기본 틀이 된 만큼, g7+와 긴밀한 연대의식을 갖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해왔고 향후 남남협력, 삼각협력으로도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E/HLS/2016/1, annex para.7

3) 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2019)

II. 주요 SDGs 이행과정 검토

2019년은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보장’이라는 주제 하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동안의 현황과 여전히 남아있는 격차와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해 각 지역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동안의 HLPF 회의에서는 SDGs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음과 순조롭게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2019 HLPF에서는 SDGs 달성에 더 많은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며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SDGs 이행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빈곤과 아동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HBV감염 발생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특정 목표들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최빈국의 전기 접근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은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세계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빈민가에 사는 도시 인구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국가 관할 하에 해양보호구역은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무엇보다도 이행수단에 대한 급격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속도나 규모 면에서 아직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극심한 빈곤율은 6%로, 빈곤 근절을 위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아는 3년 연속 증가하고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에 대한 대응은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은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미 약 100만 종의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수십 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필요한 수준의 지속가능한 개발자금 조달 및 기타 이행 수단은 아직 미흡한 단계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기관들은 이러한 세계적인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30년까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되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SDGs 이행에 대한 전 세계적 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더는 그간의 정부 및 기타 파트너의 노력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지역에서 갈등과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재난은 150%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후 변화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은 SDGs 달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9년 테마목표(SDGs 4, 8, 10, 13, 16, 17)와 관련하여서는, SDGs 달성에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 및 보편적 품질 교육 등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SDGs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한 만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동화,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과 청년, 여성 및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표 달성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파트너십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조치와 그 효과는 필요한 것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이행 약속을 가속화하고 보다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평화, 정의, 투명성, 효과성,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관과 안전한 시민 공간은 모든 목표의 진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와 관련하여 적합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전히 한정적이고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국가 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내재원동원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조세행정 강화, 불법자금흐름 해소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목표 이행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SDG 4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접근성 및 참여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으로 6~17세의 2억 6천만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이 읽기 및 수학의 최소 능숙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기준 약 7억 5천만 명의 성인이 문맹으로, 이중 3분의 2는 여성이며, 전체 문맹 인구의 절반이 남아시아에 4분의 1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은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 환경, 교사의 역량과 교육의 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소녀, 농촌지역의 청소년, 장애인, 난민, 그리고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장벽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언급되었다. 교육은 양질의 일자리 및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나아가 안정성과 평화와도 연결되는, SDGs를 달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도구인 바,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데, SDGs 이행을 위한 수단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은 성장세를 보

4) UNECOSOC (2019b) & (2019d) 내용참고

이고 있으며, 2018년 세계노동생산성은 2.1%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세계 실업률은 세계경제위기 이전 과 동일한 5.0%를 기록하였으나, 청소년의 실업률은 성인의 실업률 보다는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청소년의 5분의 1은 교육, 고용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이는 전문적인 경험을 쌓거나 기술 습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가운데,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성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7 무역을 위한 원조(aid-for-trade)는 580억 달러로 2002~2005년 기준(231억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농업, 산업,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SDG 8은 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목표이다. 그 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평등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청소년, 여성 및 기타 취약 계층이 노동시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직업, 기술 및 사회적 보호에 투자하고, 적당한 임금과 제한된 노동시간 하에 안전과 건강 및 기타 근로의 기본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양질의 노동을 장려하는 정책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불평등 감소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불평등은 현저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SDG 10 외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해결되어야 할 주요한 글로벌 과제로 남아 있다. 2011~2016년 비슷한 데이터 구조를 가진 92개국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인구의 하위 40%가 전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전체 수입 또는 소비는 25%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對개발도상국 지원금은 총 4,140억 달러였으며, 그중 ODA는 1,63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불평등은 소득과 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며, 양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 건강, 일자리, 선택의 자유, 주거, 인프라 및 기후 변화 영향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회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사회 정치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장벽과 차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은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궤도에서 벗어나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은 증가하고 기후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징후는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1998년부터 2017년 사이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약 3조 달러로 추정된다. 2013~2014년 대비 2015~2016년에는 기후기금이 17%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7년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400.1ppm에서 405.5ppm으로 증가하며 최고점에 도달했고, 산업화 이전 수준의 146%로 증가하였다. 다만 2019년 기준 28

개 국가에서 기후 적응 계획 수립 등을 위해 7,500만 달러의 GCF 보조금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SDG 13과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 및 공동의 이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DG 16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에게 정의를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이 있고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탐지는 2014년 43%에서 2016년 58%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⁵⁾, 70% 이상의 대부분은 여성과 소녀들로, 성 착취를 위해 납치된 경우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자, 언론인, 노동조합 등에 대한 살인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UN은 2017~2018년 41개국에서 431건의 살인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기자 및 블로거들이다. 폭력 해결, 법의 지배 촉진, 제도 강화 및 정의에 대한 접근성 증대는 고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보, 권리 및 기회의 박탈은 공공 서비스 및 광범위한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보다 신뢰 가능한 데이터 가용성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매년 검토되고 있는 SDG 17의 경우, 일부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ODA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소 적합하지 않은 민간투자 흐름, 상당한 디지털 격차, 그리고 지속되는 무역 갈등 등은 여전히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국가별 지역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민간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세금 관리 강화, 불법 금융차단 등 국가재원마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원조달격차 해소를 위해 이행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혁신과 함께 ODA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었다. 2018년 순 ODA는 2017년 대비 2.7% 감소한 1,490억 달러 수준에 그쳤으며, 가장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 비중 또한 감소하였다. 최빈국에 대한 양자 ODA는 2017년부터 3%, 아프리카 원조는 4%, 인도적 원조는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역량강화 및 국가 계획에 대한 ODA는 335억 달러로, 전체 ODA의 약 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부문은 공공행정, 에너지 및 금융으로 총 130억 달러에 달한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재원동원을 강화하고 세금관리 개선 및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며, 충분한 이행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SDGs 이행방안은 각국의 계획과 정책에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에 우선순위 지정 및 승수효과를 통한 진행 가속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필요하며

5)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정부의 강화된 노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혹은 인신매매 문제가 더욱 증가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가능

이를 위한 데이터와 관리 역량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
시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HLPF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비정
부 행위자의 역할 강화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와
목표 이행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공식 메커니즘의 확립, 즉 고위급 정치
포럼에서의 자발적 국별 검토 준비 및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III. 자발적 국별 검토(2019 VNR)

2019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는 총 4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유럽 10개국, 미주 4개국, 아
시아 16개국, 아프리카 1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VNR은 각국의 SDGs 이행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로, 정부 부처 외에도 시민사회 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시각에서 그 과
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이행현황을 스스로 검토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며, 2016년부터 총 142개국 158개 검토가 이루어졌다⁶⁾.

〈표 1〉 2019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국 - 47개국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콩고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에스와티니	피지	가나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모리타니	모리셔스	몽골	나우루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르완다
세인트루시아	세르비아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동티모르
통가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영국
탄자니아	바누아투			

* 주요 VNR 내용은 부록 참고

6) 총 142개국이 두 번, 1개국이 3번 제출함

2019 VNR에서는 SDGs를 국가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한 조치 및 지속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SDGs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비정부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영국,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몽골, 튀니지, 터키, 파키스탄의 경우 법체계 안에서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검토를 감독하기 위해 의회 및 행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SDG 이행 계획, 예산 책정 및 모니터링에서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터키는 정부의 SDGs 관련 활동에 대해 국회에 브리핑 보고하여 국회에 참여시키고, 파키스탄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SDGs 위원회(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 전체 및 사회 전체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며, 연방정부 부처, 지방정부 등의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통합하려는 야심찬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다수의 VNR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LNOB)’ 원칙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 서비스 보장 조치 및 취약한 특정 그룹을 위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과 불평등의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콩고 공화국에서는 건강 및 사회 보호 서비스 개선, 포괄적 개발 및 양질의 주택 이용 개선을 통해 LNOB 원칙 이행을 국가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의 일환으로 0~15세 영유아, 임산부, 토착민, HIV 감염자 및 장애인을 위해 무료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SDGs 이행현황에 대해서는 17개의 SDGs 모두를 보고한 국가들이 다수이기는 하나, 일부는 2019 HLPF 테마 목표에 대해서만 언급하거나 국가 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목표를 위주로 작성되기도 하였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SDG 1에 대해 효과적인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금전적 용어로 측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정문제, 기후변화의 영향, 제한된 행정 능력, 부족한 데이터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 중 일부이나, 사회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예상되지 않은 재난은 취약한 사람들을 빈곤에 빠트릴 수 있기에, 사회적 보호 및 안전망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SDG 8은 VNR에 제출된 모든 국가보고서에 언급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다각화, 중소기업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안전한 작업 공간 조성, 디지털경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 등의 다양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경제성장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두 번째 참여하는 국가들에서는 첫 번째 참여 대비 더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으며,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통한 SDG 플랫폼, 도시개발협의회 및 기타 여러 주체들과의 회의 등의 방안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2030 의제 달성을 위해서 양질의 교육(SDG 4)와 정의·평화 효과적인 제도(SDG 16)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을 제시하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법 접근성을 강조하였다. 군소도서개발도상국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SDG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변혁적인 행동(transformative action)으로서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과 범분야 이슈이자 VNR의 주요 메시지로써 복원력은 재차 강조되었다.

총 47개국에서 참여한 VNR은 국가들의 SDGs 이행에 대한 많은 노력과 그 결과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 및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인지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SDGs에 대한 정책적인 영향, 데이터 가용성, 품질 및 구체성, 재원동원, 예산, SDGs에 대한 이해 관계자 참여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식별 등 다양한 도전과제가 남아 있다. 많은 국가들이 VNR에 참여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스스로 수행하며 일회성 발표가 아닌, 교환 및 정보를 바탕으로 모멘텀을 유지하고 SDGs 이행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IV. 2019 UN HLPF 의의 및 향후 일정

2019 HLPF는 UN 총회 결의안 70/299 채택에 따라 SDGs 이행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네 번째 해로, 각 목표별 국제사회의 이행정도 및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였다. 각국의 이행 수준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은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노력과 실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일부 목표에 대해서는 역행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4년간 17개 목표 모두를 검토한 첫 사이클이 완료된 해로, 그 간의 HLPF의 역할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SDGs 이행의 지속적인 점검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HLPF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각의 테마에 따라 논의 주제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며 국제사회의 SDGs 이행에 대한 필요성과 달성 의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VNR의 경우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국내 이행현황을 돌아보고 검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선사항으로는, 일부 목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으나, 목표들 간에 연관

성이 높은 만큼 모든 목표를 매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모든 목표를 검토하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범분야 이슈나 LNOB원칙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VNR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될 필요성이 있으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지식 및 노하우 공유 등의 시간에 대한 의견 및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시간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 참여국에 우선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밖에 VNR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나,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할 과제로 언급되었다.

한편, 9월 UN총회 주관으로 소집된 HLPF에서는 SDGs 이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십년의 전략: Gearing up for a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정치선언문⁷⁾을 발표하였다. SDGs 이행현황 점검 결과 지금과 같은 속도의 SDGs 이행으로는 모든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 중심의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더 많은 주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선언문의 일환으로 “SDG 가속화 조치(SDG Acceleration Actions)”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SDGs의 신속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145개의 SDG 가속화 조치가 접수⁸⁾되었으며, 향후 각국은 VNR을 통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UN DESA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2019 GSDR에서는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서는 규모와 속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의 시급함, 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원칙과 같은 규범적 고려를 통해 선정한 6개의 진입점⁹⁾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진입점을 일관되게 배치하여 필요한 변화를 수행할 수 있는 4개의 수단으로 거버넌스, 경제와 자원, 개인 및 집단 행동, 과학과 기술을 제시하였다.

7) A/RES/74/4

8)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_actions

9) 개별 SDG나 그룹별 SDGs의 진입점이 아닌 SDGs 달성을 위한 기본시스템적인 진입점임

〈표 2〉 6개 진입점과 행동조치

진입점	행동조치
인간의 복지와 능력 (Human well-being and capabilities)	- 모든 이해관계자는 양질의 기본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빈곤 및 취약 계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 - 모든 사람이 양질의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법적·사회적 차별을 종식하며 인적 역량 구축에 투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Sustainable and just economies)	-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부문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보다 강력하게 연계된 투자를 장려하고 노력 -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고소득국, 중소득국, 저소득국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접근법을 활용한 차별화된 시작점에서 환경 자원의 과잉소모와 GDP 성장을 분리 - 정부, 시민사회 및 민간은 국가 및 국가 간 부와 소득의 불평등 감소와 함께 더 나은 생활 수준과 기회의 수렴 촉진
식품 시스템 및 영양 패턴 (Food systems and nutrition patterns)	- 기존의 인프라, 정책, 규정 및 규범 등에서 보편적인 건강을 증진하고 영양결핍 문제를 감소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식품 및 영양 시스템으로 전환 - 정부는 식품 소비와 관련된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한 책임을 갖고 품질 개선, 회복성 구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저탄소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권 (Energy decarbonization with universal access)	- 비용효율적인 전기공급을 가속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 - 국제 및 국가 단체와 이해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CO2 순배출이 없는 상태로 전환하고 탄소 가격 책정 및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하여 파리 협약 목표 달성
도시 및 도시 주변 개발 (Urban and peri-urban development)	- 각 정부는 효과적이고 증거기반의 폭넓은 참여적인 정책입안 위해 각 도시에 자치권과 자원을 제공 - 정부와 지방 도시 당국은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빈곤정책 및 투자를 장려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물, 교통, 에너지 및 위생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도시 구축
공통의 지구 환경 (Global environmental commons)	- 정부, 지역 사회, 민간 등은 SDGs 달성과 동시에 자원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변화 필요 - 정부는 전세계 환경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가격, 이전, 규제 및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사용 패턴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2019 GSDR 참고

2019 GSDR은 인간의 삶과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두 구성 요소 사이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현재 지속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음을 밝히며, SDGs 달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생산적인 지속 가능한 경로를 6개의 진입점을 통해 제시하였다.

GSDR의 지난 4년간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이행계획 및 SDGs 달성에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치적선언문이 발표된 가운데, 2020년 HLPF는 7월 9~1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며,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VNR에는 총 49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중 27개국이 새로이 참여하고 22개국은 기존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¹⁰⁾.

〈표 3〉 2020년 자발적 국별 검토(VNR) 참여 예정 국가 - 49개국*(2019년 12월 기준)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룬디
코스타리카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토니아
핀란드	감비아	조지아	온두라스	인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리비아	말라위
미크로네시아연방국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몰도바
마케도니아	러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세이셸
슬로베니아	솔로몬제도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짐바브웨	

■ 1회 참여 ■ 2회 참여

* 54개국에서 VNR 발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COSOC에서는 49개 국가로 합의. 다만, 홈페이지와 9월 ECOSOC 발표문에서의 국가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 홈페이지에는 바베이도스와 케냐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으나, 발표문에는 요르단과 모나코가 리스트에 있음.

10) 2020년에는 과거 3개년에 비해 두 번째 참여하는 국가가 22개국으로 급격하게 증대되었는데, 이는 많은 국가들이 지난 4년 간의 VNR 참여하였으며, 참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SDGs 이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지현(2016)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개발과 이슈 제2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윤유리(2017)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 개발과 이슈 제39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윤유리(2018)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III, 개발과 이슈 제46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Expert Group Meeting on Lessons learned from the first cycle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HLPF), <https://sdg.iisd.org/events/expert-group-meeting-on-lessons-learned-from-first-cycle-of-hlpf/>(접속일: 2019.12.2.)

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2019)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The Future is Now: Science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globalreport/2019#home>(접속일: 2019.11.5.)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Website,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접속일: 2019.12.2.)

Third Global VNR workshop,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53707112019_Third_Global_VNR_workshop_draft_summary.pdf (접속일: 2019.11.5.)

UN DESA(2019)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s Synthesis Repor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vnrs/>(접속일: 2019.11.5.)

UN ECOSOC(2016) Ministeri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2016 sess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the annual theme “Implement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moving from commitments to results”(E/HLS/2016/1)

_____ (2019a) Report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t its 2019 session(E/HLPF/2019/7)

_____ (2019b) Summary by the Presid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Council at its 2019 session(E/HLPF/2019/8)

_____ (2019c) Compilations of main messages for the 2019 voluntary national reviews(E/HLPF/2019/5)

_____ (2019d) Progress toward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E/2019/68)

UN General Assembly(2019a)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 (A/HLPF/2019/L.1)

_____ (2019b) 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ven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eneral Assembly(A/RES/74/4)

_____ (2019c) Summary of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_____ (2013) Format and organizational aspects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A/RES/67/290)

_____ (2016) Follow-up and review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global level(A/RES/70/299)

United Nations (2019)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9,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rogress-report/>(접속일: 2019.11.5.)

[부록: 2019 자발적 국별 검토(VNR) 요약]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알제리아	- SDGs 달성 모니터링 및 평가기관으로 외교부 산하 부처간 조정 위원회 설립 - 사회서비스 질 향상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다각화, 기후변화, 책임있는 소비 및 생산 부문의 도전과제 해결 모색
아제르바이잔	‘유엔 주류화, 가속, 정책지원(MAPS)’ 미션을 통해 SDGs 이행의 촉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녹색성장 촉진’, ‘공공서비스 향상’을 중점분야로 설정 2018년 ‘국가혁신대회’를 개최하여 SDGs 도전과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청년 및 시민사회 참여 강화 - 아르메니아와의 영토분쟁 해결, 비 석유부문 산업 개발 및 다각화, 통계역량 강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2016년 수립된 ‘Imagine2030’ 이니셔티브 아래 워크숍 주최 및 2018년 다중이해관계자 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구 ‘유엔 주류화, 가속, 정책지원(MAPS)’의 신속통합평가(RIA) 도구를 활용한 국가 우선순위와 SDGs의 일관성 검토, SDG 대시보드(dashboards) 데이터에 기반한 SDGs 간 연계성 및 복합성 분석
부르키나파소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SDGs를 반영하고 14개 분야 정책 및 지역개발계획 통해 실행 - SDGs 4(교육), 8(일자리/경제성장), 10(불평등), 13(기후변화), 16(평화, 정의/제도), 17(글로벌 파트너십) 성취수준과 도전과제를 세부적으로 명시
캄보디아	- 국가 실정에 맞는 ‘캄보디아 SDGs(CSDGs)’를 수립하고 ‘2019~2023 국가전략개발계획(NSDP)’과 공공 예산안에 통합하여 반영 - CSDGs 재원조달 및 기후변화 적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카메룬	- IMF와의 경제 및 재정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국가 상황에 맞게 SDGs를 반영한 임시 개발전략 수립 - 경제 다각화와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공공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 조성 노력 - 산림보존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REDD+) 및 탄소배출 32% 감소 목표 수립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교육, 경제, 정의 부문에서 진전을 나타내고 ODA를 국가 주요 자원으로 사용 - 국가 당국의 사실상 부재로 인한 불법 금융이전 악화와 부패 문제 해결 시급 - 특별 형사 재판소 설립, 평화 및 화해 협정 이행, 국가복원전략과 같은 강력한 조치 필요
차드	- 교육 접근성 및 질 저하, GDP 감소(2018년 -3.8%), 불평등 증가, 취약한 안보 및 기후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 부정적 결과가 나타났지만 성평등 관련 법률 발전으로 국회 여성 비율이 1997~2002년 2%에서 2018년 15%로 증가함 - 데이터 가용성이 불충분, 조정 메커니즘의 취약으로 인해 SDG 모니터링이 제한적임 - 사막화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민의 건강과 복지 개선 및 육상생태계 보존 노력 필요
칠레	2030년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이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강화 및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이행전략 경로 묘사 - 다양한 취약집단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과 법률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 과정에 시민사회 및 다른 행위자들 참여 -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매트릭스 변형 및 해양 보호 등을 통해 COP25 완성 - 경제영역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 여성의 노동참여, 중소기업 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APEC 2019 포럼에서 시각화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 SDG 목표 중 4(양질의 교육), 8(고용 및 산업),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 대응), 16(평화), 17(파트너십) 현황과 달성을 위한 해결 과제 제시 - SDG 2030 도달을 위해 통계용량 구축을 위한 예산을 2030년에 약 2,800만 USD으로 할당
코트디부아르	- SDG를 고려하여 2016년부터 모든 시민이 환경품질, 경제효율성 및 사회적 진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행위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0개의 우선목표 및 11개의 촉매 역할 설정 - 국가 발전 및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 결과 공유, 사회 응집력 강화, 세분화된 데이터의 가용성, 재무 동원, SDG 요구사항에 대한 계획 조정 및 동원 등의 노력 필요
크로아티아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가위원회 설립 및 '2030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크로아티아 2030: 우리가 원하는 크로아티아"의 주제로 여러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 참여 제고 - SDGs 주요지표 달성 결과의 배포를 위해 '지속가능개발 지식 플랫폼'에서 '국가 통계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설
에스와티니	- 포용적 성장과 불평등 해소에 강조를 두며 '국가발전전략(비전 2022)'에 SDGs 반영 - 빈곤 및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파트너십 부문을 중점과제로 설정
피지	2017년 SDGs를 국가 우선순위로 통합하여 5개년 및 20개년 국가개발계획 수립 "2017년 해양 회의"의 공동 주최 및 유엔기후변화협약의 23회 세션 의장을 통해 기후 및 해양 이슈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
가나	'고위급 장관위원회', '다중 이해 관계자 이행 조정위원회', '기술위원회'로 이루어진 3계층 구조로 SDGs 감독, 조정, 이행 '지속가능한 개발 로드맵을 위한 국가 데이터' 개발
과테말라	- 장기적 우선순위로 적절한 고용 및 투자를 이끌어낸 인턴 서류화에서 기업부문의 적극적 참여 및 '2018~2032년 국가 경쟁력 정책 및 기업가 정신 법(una Política Nacional de Competitividad 2018-2032 y una Ley de Emprendimiento)' 제정 - SDG 16 실현을 위한 정부내각 개편 및 국제 사법재판소(ICJ)를 통한 벨리즈와의 영토, 고립 및 해상분쟁 해결을 위한 대중상담 실시
가이아나	'녹색국가발전계획: 비전 2040'를 수립하여 녹색 어젠다의 원칙 반영 - 스마트 보건시설, 환경교육 제고, 회복력 있는 농업 등 다분야 접근법을 통한 기후 적응 및 완화 노력
아이슬란드	-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에 선두적 위치 - 정부 5개년 재정 전략에 SDGs 통합하여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 가능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청년 위원회'를 통해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제공
인도네시아	'국가중기발전어젠다(RPJMN)'와 정부의 연간 지방계획에 SDGs 주류화 - 빈곤율 감소, 고용 및 교육접근 증가, 온실가스 및 재난위험 감소에 진전을 기록 - 공평한 공공서비스 접근, 굿 거버넌스, 재난위험 및 기후변화, 국내재원조달을 도전 과제로 설정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이라크	- 테러 그룹과의 분쟁과 유가 하락이라는 국가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자발적 국별 검토(VNR)를 실시함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함 - 국가-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경제, 사회 및 환경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 설립 2019년 VNR은 인간 개발(SDG 1, 3, 4, 5), 굿 거버넌스와 안전한 사회(SDG 16), 경제 다양화(SDG 8, 9), 환경 지속가능성(SDG 6, 11, 13)에 초점을 맞춤 - 학교 등록률, 출산율, 아동 및 모성 사망률, 빈곤지수, 거버넌스 관련 지표에서 개선이 있으나 난민, 재건 부담, 정치적 불안정,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제 구축 등의 도전과제가 있음
이스라엘	- 인도주의적 건강, 농업기술, 수자원에 초점을 맞춘 GCI Grand Challenges Program,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the Assistive Technology for the Disabled Program, the Diverse Startups Program for ultra-Orthodox and minority entrepreneurs 등에 투자 착수 - 인력 기술과 교육 증진, 기업이 정신 장려, 저소득층의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투자 실행 - SDGs를 정부 전략 계획에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결정을 준비 중임
카자흐스탄	- 국민 참여를 위해 2018년에 정부 및 5개의 부서 간 실무 그룹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조정 협의회를 설립함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평화,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향상된 공공 서비스 등을 주요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함
쿠웨이트	- SDGs를 2035년 쿠웨이트 첫 번째 개발 계획에 통합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국립지속가능발전전망관측소(National Observato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설립 - 정부기관, 시민 사회단체, 학술기관, 민간 부문 및 UN 파트너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워크숍과 세미나 소집
레소토	- 국가전략개발계획II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 퇴치를 위한 우선목표를 고용 창출과 포용적 성장으로 설정 -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및 재난위험 관리, 탄력성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탄력성 전략 프레임워크(National Resilience Strategic Framework) 설립
리히텐슈타인	2019년 VNR에서는 SDG 1(빈곤), SDG 2(기아), SDG 3(건강), SDG 4(교육), SDG 14(수자원), SDG 8(일자리), SDG 16(사회평화) 분야의 진전을 강조 -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 - 자선 재단만으로도 매년 약 2억 스위스 프랑을 자선 사업에 지출 중이며, 해외 인도주의적 원조 및 개발프로젝트를 위해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2백만 스위스 프랑을 모금
모리타니	2016년 모리타니 정부는 성장 가속화 및 상생 번영을 위한 2016~2030 국가 전략을 수립 - 식수관리, 젠더와 인권 부분 개선, 농수산업 다양화와 인프라 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 성장, 국가 사회 이전 프로그램 "Tekavoul"을 통해 100,000명의 빈민층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전달 - 부채 부담과 공개개발원조의 지속적인 감소는 2030년 의제 달성의 위험을 초래 중
모리셔스	- SDG 목표 중 SDG 1(빈곤퇴치), 4(교육), 8(고용), 9(기술 및 혁신), 13 및 1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 명시 - 모리셔스-세이셸 간 해양 공유 공동체출 및 해상 안전 중심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인도양 위원회와 회의 매년 구축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몽골	• 몽골의 개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통합, 일관성, 우선순위 결정, 자금조달 및 효과적 모니터링과 보고서와의 연계성 보장의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한 개발렌즈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 명시
나우루	• 자금 및 직원 역량 부족, 취약한 조직, 토지 문제 및 불분명한 목표로 인해 국가 지속가능 개발 전략의 26%만이 시행됨 • 보건, 교육 목표 실행의 현황 및 한계, 기후변화, 세계 경제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취약성 명시 •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조정 및 협의 개선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개발 개발 위원회(A 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ttee) 설치
뉴질랜드	• 지속가능한 세대 간 복지를 정책 수립과 자원 관리의 중심에 두는 생활 표준 프레임워크(Living Standards Framework)를 세워 광범위한 경제, 사회 및 환경영역에 걸친 위험과 복원력, 웰빙의 역동성을 측정하고 분석 • 2022년까지 총국민소득(GNI)의 0.28%인 6억 6,700만 뉴질랜드 달러를 추가하여 ODA 예산을 기존 예산보다 30% 증액함 • 뉴질랜드 ODA의 60%는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경제 회복력 향상에 집중
오만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알맞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형성 • 균형 잡힌 성장 달성 및 균등 분배를 위해 개발관련 총재와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 경제, 사회 및 환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랍 지역 및 세계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
파키스탄	• 국가 빈곤 완화 프로그램 “Ehsaas” 실행으로 사회보호 및 안전망 확대, 전국 인적자본 개발 지원, 빈곤층 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보완 및 확장 • 보험 이니셔티브 “Sehat Sahulat”를 통해 중앙집중식 통합 질병 감시 시스템과 강력한 지방 간 정보 공유 매커니즘을 수반하는 보건부문 개혁 착수 • 생태계 복원을 위해 350,000 헥타르에 10억 그루 식수 및 “Clean and Green Pakistan and Recharge Pakistan” 계획 실행 • 데이터 가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데이터 수집 톨 수정
팔라우	• 8개의 다 부문 실무 그룹(△문화, 형평성 및 젠더 △보건 및 영양 △질 좋은 교육 △물, 해양 및 환경시스템 △에너지, 산업 및 인프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및 통합적 경제 성장 △평화와 정의 △파트너십)의 주도로 최초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구성 • 빈곤감축과 평등 보장을 위해 질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방지 및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노력 필요 • 경제 다각화, 관광산업 지원, 농촌 빈곤 감축, 기후변화 대응 방안의 설립과 2024년에 미국과의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자금 지원의 종료 준비노력을 대응하기 위한 농수산업 개발 필요
필리핀	• 포괄성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비정부 간의 시너지를 강조 • SDG 목표 중 4(질 좋은 교육), 8(일자리), 10(불평등 감소), 13(기후변화행동), 16(평화), 17(효율적인 파트너십)에 집중하여 진행상황 및 과제 제시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르완다	• 화합, 야망, 책임을 세 가지 기본으로 '공유 비전 2020' 착수 • SDG 목표 중 4(교육), 8(일자리),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 대응), 16(평화), 17(파트너십) 진행상황 및 도전과제 제시 • 목표 달성 가속화 및 성공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자원과 국가 통계 부문에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필요
세인트루시아	• SDG 목표 중 3(복리증진), 4(양질의 교육), 5(성평등), 7(친환경 에너지), 8(고용),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 대응), 16(평화), 17(파트너십)의 이행현황 및 도전과제 제시 • 경제 변화,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경제 및 사회기반시설에 확장에 대한 투자요건 충족을 위해 국내 자원동원 및 균형적인 개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 필요
세르비아	• EU의 지속가능성 변화에 따라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6가지 경로 설정: 1. 세르비아와 유럽 및 전 세계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연결 및 통합 2. 경제, 과학 및 혁신 자원을 기반으로 더 빠르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3.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4. 인권 및 안보증진 5. 21세기를 위한 교육 6. 혁신적인 디지털화
시에라리온	• SDG 목표 중 4(교육)와 16(정의)가 혁신의 중심이라는 추정에 근거, 개발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가속기로 설정 • 2019년 4월 헤이그에서 "모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All)" 보고서를 출간한 '정의에 관한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 "G7+그룹과 평화건설 및 국가건설을 위한 국제대화"에서 의장 및 공동의장 역임 및 평화 및 국가응집력위원회(Peace and National Cohesion Commission) 설립
남아프리카 공화국	• 국회 여성대표의 비율 증가: 1994년 25%에서 2016년 42%, 상임이사 중 약 35%를 여성이 차지 •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의 선두주자로서, 재생 에너지, 친환경 대중교통, 에너지 효율성, 폐기물 관리 및 토지 복구 이니셔티브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채택과 투자 확대 • 포괄적이고 탄력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 정착 개발을 위한 통합 도시 개발 프레임워크 채택 •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부패, 데이터 분리 등의 도전과제 잔존
동티모르	• 석유기금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천연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수익 절약 및 관리 • 소득, 성별, 연령, 이동여부, 장애, 사회적 그룹 및 지리적 위치 등 데이터 세분화를 위한 더 많은 투자 필요 • SDG 발전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의 선례를 타 국가의 경험 전수 의지 표명
통가	• 고급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섬 공동체를 포함한 빈곤 보고 및 신뢰가능하고 유효하며 상황에 맞는 강력한 다차원 빈곤 측정법 개발 • 'A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Join National Action Plan 2018~2028'을 통해 모든 취약한 지역사회의 대처능력 강화 및 기후변화 신탁기금 설립
튀니지	• 2016~2020년 국가 개발 계획에서 공공투자의 75%를 빈곤지역에 할당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3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2011년 선거법에 성별 평준화 도입 후 2018년 5월 지방선거 후보의 48%, 시장 후보의 20%가 여성으로 등록됨 • 보장된 최저임금에 비해 현금 이전의 증가(2010년 22%, 2019년 50%) • 2018년에 285,000 가구가 무료 의료 수혜, 623,000 가구가 저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수혜

국가	보고서 및 발표의 주요 내용
터키	- SDG 목표 중 1(빈곤종식), 3(복리증진), 6(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성 보장), 7(에너지 접근보장), 9(지속가능한 산업화), 11(지속가능 도시 조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 확인 - 지역 간 인프라 감소 및 전국 기술 홍보 정책을 통해 포괄적 개발 경로 확보 2018년의 총 ODA 규모가 82억 달러로 ODA/GNI 목표인 0.7%를 상회하는 1.10% 달성 - 약 360만 시리아 난민을 위해 370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인구 유치
투르크메니스탄	- 경제의 녹색 영역을 강조하여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시장경제 개발 및 정치·경제·문화에서 여성의 동등한 기회 및 완전한 참여 보장에 집중 - 국가 통계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필요 명시 - 국제개발은행 등을 통한 양화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자금 조달 노력 - 중앙아시아 수자원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랄해 유역을 위한 특별 유엔 프로그램 공식화 시도
영국	-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높은 교육 수준, 더 많은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 증가, 기후 및 환경에의 진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안의 일부 제정 등의 긍정적 결과 명시 - ODA/GNI의 0.7% 지출 및 최빈국에 GNI의 0.15~0.2%를 ODA에 할당할 것을 약속
탄자니아	“사람들의 역량 강화 및 포용성과 평등 보장”을 주제로 제19년 가이드라인에 따라 SDG 목표 중 4(교육), 8(고용), 10(불평등 해소), 13(기후변화대응), 16(평화), 17(파트너십) 검토 - 민간 주도로 “Girls Retention and Transition Initiative”, “Girls Empowerment Projec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촉진 도모, 모바일 캠페인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 제공, “Friends of Education”을 통해 여학생들의 학교 출석 모니터링 ‘a Strong Productive Social Safety Net Program and a Community Health Fund’를 통한 극빈층의 생활수준 개선 및 취약한 아동의 인적자본 보호 - 국가 탄소 모니터링 센터(National Carbon Monitoring Centre) 설립, “Participatory Integrated Climate Services for th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소규모 농어촌민에게 기후변화 관련 취약성 대응 지원
바누아투	- 무상교육 제공,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훈련, 교육과정에 방언 포함 등의 언어 규제 정책 개발 - 정부, 시의회 및 UN 여성 간의 공동협력을 통한 시장 변화 주도권 이니셔티브 형성 “The Decentraliz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of a Decentralization Policy 2017~2027”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통제력 강화 및 공공서비스 제공의 직접 참여 유도 “The National Policy on Climate Chan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2016~2030”으로 지역사회, 환경 및 경제가 기후변화 및 재난 위험에 탄력성을 갖도록 하는 틀 제공 “Society 4, Social Inclusion” 아래 여성,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Ni-Vanuatu의 권리가 법률과 기관에서 지원, 보호, 촉진되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설정

* 자세한 내용은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웹사이트의 국별 평가 참조

MEMO

Area for handwritten notes,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ashed lines.

『개발과 이슈』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최근 연구 및 정책을 소개하여 국내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되는 비정기간행물입니다.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와 집필자 명시하에 인용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자료는 KOICA ODA전자도서관(lib.koica.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